# 19세기 사족 여성의 빈곤 경험과 대처에 관한 연구

황수연*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사족 여성의 빈곤 경험
3. 사족 여성의 빈곤 대처
  3.1 의존적한시적 대처: 친정의 원조와 차용
  3.2 적극적장기적 대처: 생산적 경제활동
4.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빈곤 경험과 대처에 대한 의미:빈곤의 성차별화
5. 맺는 말

〈국문초록〉

19세기에는 중앙 정계 진출의 제한, 남녀 차별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감소, 부세 정책의 심화 등으로 빈곤한 사족이 증가했다. 집안 살림을 주관한 사족 여성은 빈곤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족 여성들은 의존적이고 한시적인 방편으로 친정의 원조를 받거나 빚을 지어 빈곤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보다 많은 사족 여성들은 길쌈, 누에치기, 밭 가꾸기, 고리대금업 등 생업을 마련하고 생산적 경제 활동을 통해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빈곤에 대처하였다. 여성의 빈곤은 규범과 결합되어 서술되는 경향이 있다. 유교적 규범은 빈곤한 사족 여성에게도 예외 없이 요구되었고 효도, 배려, 나눔, 보살핌 등의 윤

* 홍익대학교 교양과 초빙교수

리적 행위와 관련되어 기록되었다. 가족 내의 권력관계와 규범 등과 관련된 비물질적 요인들로 인해 여성은 남성과 빈곤을 다르게 그리고 불평등하게 경험하였다. 사족 여성의 경제적 활동과 기여는 사적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가정에서의 위상이 높아졌을 것이라 짐작된다.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는 근대로 가면서 더욱 심화되었고 가족과 신분의 해체 등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며 또 다른 모습으로 여성의 빈곤을 야기하게 된다.

핵심어 : 19세기, 사족 여성, 빈곤. 경제활동, 실용적 경제관, 근대

## 1. 들어가는 말

조선시대 대부분의 사족 남성은 중앙정계에 진출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무렵부터 중앙 권력이 경화사족에 집중됨으로써 다수의 사족들은 관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갈수록 향촌에 거주하는 사족이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는 좁아졌다. 16, 17세기까지 이어져오던 분할 상속의 관행은 향촌 사족들의 토지 전답의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1] 자녀균분상속을 통해 비록 당대의 거대지주라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2] 19세기에는 부세정책이 심하게 경직되면서 사족이 무토지(無土地) 농민으로 전락하는 일이 일어났고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사족 내부의 빈부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3] 조선후기 빈곤(貧困)한 사족이 생겨난 원인은 이러한 사회 변화에 기인한다. 녹봉과 농사로 생업을 이어

1)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222쪽.
2)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한길사, 1999, 530쪽.
3) 김건태, 앞의 책, 223쪽.

가던 사족이 관직에 오르지 못하거나 토지나 종 등 증여 받은 재산이 없으면 생계를 위협받는 지경에 놓이는 경우도 있었다. 16,17세기에서도 사족 상호간의 경제적 불균(不均)은 있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사족 내부에서 조정되고 있었고 또 한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의 대지주와 몰락양반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이었고, 그것은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다.[4]

삶의 물적 토대를 이루는 사회경제적 변화는 당대인의 삶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조선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글에서도 빈곤한 사족 여성의 삶과 그들이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자세하게 기술된다. 물론 이전 시기 사족 여성이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을 했다는 기록도 여러 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5] 그러나 17, 18세기 사족 여성이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애쓴 경우는 일시적이고 단기간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빈곤에 대처하는 방식도 19세기와는 달랐다. 여성의 빈곤 문제는 여성의 노동과 경제 활동과 관련된다. 조선시대 여성의 경제 활동은 '치산(治産)'이라 불리며 집안 살림과 노동, 재산 관리 등의 내용을 두루 포함하였다. "지사 불망재구학"(志士不忘在溝壑: 뜻있는 선비는 궁핍한 지경에 처하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의 유교 문화에서 경제적 상황에 대해 무관심하고자 했던 사족 남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술은 금기시된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은 사구고, 봉제사, 접빈객, 교육 등과 더불어 빠지지 않고 언급된 경우가 많다.[6]본고는 사회경제적 변혁기인 18세기를 거쳐 여러 변화된 생

4) 정진영, 앞의 책, 530쪽.

5)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183쪽.

6) 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92쪽. 이 밖에 여성의 노동과 경제 활동을 다룬 연구는 김석회, 「조선후기 향촌사족층 여성의 삶과 시집살이 서사-<망실안인윤씨행장>, <삼한습유>. <복선화음가>의 경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집,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18~19세기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8권 4호,

활상을 보이는 19세기를 대상으로 사족의 신분을 유지했던 여성이 빈곤에 처하며 겪은 경험과 이에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해 했던 행위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이 시기 여성을 대상으로 작성된 행장, 묘지명, 제문 등 여성의 생애를 다룬 글들이다.[7]

## 2. 사족 여성의 빈곤 경험

토지의 크기나 노비의 수, 녹봉의 액수 등 빈부(貧富)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빈곤'[8]하다는 표현은 서술자에 따라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며 상투적이고 관습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다거나 생업이 없었다는 서술 등은 빈곤함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언급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사족 여성들이 빈곤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과 계기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족 여성의 빈부의 차이를 통해 빈곤의 실상을 보기 위해 먼저 부유한 사족 여성의 삶을 살펴보기로 한다.

> <자료1> 세상의 부녀자들의 행동은 문지방 밖에 드러나지 않소. 따라서 비록 옛날의 어진 부인이라도 전해지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소. 옛날 <부이>의 즐거움과 <채빈>과 <채번>의 공경함, 그리고 <소성>의 은혜에 대해 강에서 읊으며 노래하여 국풍에 기록하고 관현으로 연주한 것은 온 세상

2012, 김경미, 『家와 여성』, 여이연, 2012 등이 있다.

7) 홍학희 외,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9권, 2013, 보고사, 에 실린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8) 전통적인 빈곤개념은 '빈곤선(poverty line)'개념으로 측정된다. 빈곤이란 개인 혹은 가구 단위에서 기본적인 물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소득의 부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끼니를 거르고 생업이 없다는 상황을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채원, 『숨겨진 빈곤』, 푸른 사상사, 2010 참고.

에 영원토록 가르치고자 해서였소. 역사에 드러난 것은 덕요가 밥상을 눈썹 높이로 들어 상을 올린 것과 소군이 항아리를 쥔 것과 적씨가 섶으로 불을 땐 일이오. 웅환을 만들고 베를 끊어 버리고 머리털을 자른 자애로움은 간혹 그 남편의 덕과 자식의 현철함 때문에 함께 뒤에 드러난 것이오. 그 밖의 우뚝하고 밝고 정대한 행실은 모두 궁핍하고 근심하고 가난한 상황에서 대부분 나왔소. 지금 당신은 일찍이 남편을 좇아 귀한 신분이고 가문이 화목하오. 우물물 긷고 절구질하는 수고로움과 고치 켜며 베 짜는 일을 하지 않으며 날마다 다만 마늘과 파로 음식의 간을 맞추고 삶아 요리하는 것을 도우며 바늘과 가위를 가지고 마름질하고 꿰매는 일을 할 따름이니 어찌 동관의 역사에 수놓을 만한 기록할 말과 실을 행실이 있겠소?"[9]

정원용(1783~1873)이 60세 생일을 맞는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글이다. 이 글은 정원용이 자발적으로 써준 것이 아니라 아내의 요구에 의해 작성되었다. 수서를 요구하는 아내에게 정원용은 자신에게 시집와 무난하게 살아온 아내에게 특별한 공로가 없고, 여성을 밖에 드러내는 것이 권장할 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지어줄 것을 망설였다. 그가 생각한 특별한 여성은 "궁핍하고 근심하고 가난한 상황"을 극복한 여성인데 자신의 아내는 "우물물 긷고 절구질하는 수고로움과 고치 켜며 베 짜는 일"을 하지 않고 요리하고 옷 짓는 일 등 기본적인 일만 하며 지냈기 때문에 기록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망설인 이유였다. 정원용의 부인은 강릉 김씨로 아버지는 김계락(金啓樂)이며 어머니는 조태현(趙台鉉)의 딸이다. 정종 계묘년(1783년)에 태어나 15세에 정원용과 결혼하였고 75세에 죽었다. 정원용은 예조판서를 거쳐 좌의정과 영의정에 오른 권문세가의 자손이었고, 친정아버지는 형조판서와 예조판서를 지냈으니 그야말로 시가와 친가 모두 甲族이었다, 이 여성의 삶은 청요직을 두루 거친 부유한 시가와 친정 덕분에 부귀와 영화를 누린 전형적인 경화사족 부녀의

9) 정원용, <아내 정경부인 60새 수서(內子貞敬夫人六十壽序)>, 김현미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4권, 2013, 보고사, 248쪽.

경제적 상황을 보여준다. 18세기 이후 서울이라는 도시를 삶의 근간으로 한 경화사족부녀(京華士族婦女)와 향촌에 거주하는 향촌사족부녀(鄕村士族婦女)의 경제적 문화적 기반은 확연히 차이가 났다.[10] 정원용의 부인처럼 상류사족에 속하여 경제적 혜택을 누린 여성은 그리 많지 않았다.

> <자료2>남편의 집안은 평소 가난해 표주박의 밥이 여러 번 비고 매우 가난해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으나 얼굴빛을 편히 하며 원망하지 않은 것이 마치 사군자가 험한 곳에 처하는 것 같았다. 이는 세속의 부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번은 남편이 가난하여 학업에 방해될까 걱정하여 경계하여 말하길,
>
> "대장부의 가슴속이 텅 비어 아는 바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귀중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공부하여 신하가 되는 것을 어찌 바라겠습니까? 원컨대 당신은 명심하여 뜻을 돈독히 하여 위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평소 걱정하셨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아래로는 저의 앙망하는 뜻을 이루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11]

위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송병선(1836~1905)의 아내이다. 송병선은 조선의 주자학을 보급시킨 송시열의 9대손으로 고향인 회덕에서 살았다. 그는 1877년부터 태능참봉(泰陵參奉), 서연관(書筵官)·경연관(經筵官) 등을 시작으로 1903년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관직에 천거되었지만 모두 거부하였다. 그는 '나아가지 않고 물러나 도(道)를 부지(扶持)하는 것'이 봉건질서가 무너지고 외세에 흔들리던 조선말기의 사회 속에서 당대의 유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여겨 가학을 이으며 평생을 저술과 강학에 힘썼다. 송병선 아버지 송면수도 생업이 없어 빈곤했다.[12]

---

10) 김경미, 『家와 여성』, 여이연, 2012, 32쪽.

11) 송병선, <망실이씨행장(亡室李氏行狀)> , 황수연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7권, 2013, 보고사, 31쪽.

12) 송병선의 생모와 계모의 빈곤 경험에 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송병선, <정부인

관계에 진출하지 않은 송병선 집안은 대를 이어 곤궁한 형편에 처했으며 마침내 송병선의 아내는 끼니를 잇기 어려울 정도의 극빈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송병선의 아내는 남편이 가난한 살림에 연연하지 않고 학업을 성취하여 시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말 것을 바랐다. 시아버지의 뜻은 은진 송씨 집안에서 이어져 오는 '가학(家學)'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병선 아내의 빈곤한 삶은 관직에 진출하지 않은 가문에 시집온 향촌 사족 여성이 지속적 빈곤에 처한 상황을 보여준다. 13)

사족 여성은 남편의 정치적 부침으로 인한 일정하지 않은 수입14), 학업 정진 등으로 빈곤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의 빈곤은 주로 결혼 후의 경험이 집중적으로 부각된다.15) 경제적 상황보다는 淸名을 보다 중요한 혼인의 조건으로 여겼던 19세기 사족의 혼벌(婚閥)을 이유로 들 수 있다.

---

에 추증된 어머니 이씨의 묘지(先妣贈貞夫人李氏墓誌)> '아버님은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시고 뜻을 지키시며 생업을 다스리지 않으셨으나 어머니는 매우 부지런하게 일을 처리하셨으며 반듯하게 조리가 있었다. 아버지로 하여금 실과 곡식과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하셨다. " 송병선, <정부인에 추증된 어머니 김씨의 묘지(先妣贈貞夫人金氏墓誌)> "집안이 가난하여 생업이 없었기 때문에 때때로 나물뿌리를 캐어 먹으며 아침과 저녁 끼니를 때웠으나 편안하게 처하여 일찍이 근심하거나 탄식하는 얼굴빛을 보인 적이 없었다." 황수연, 앞의 책, 17쪽, 21쪽.

13) 향촌의 양반 부인의 빈곤과 경제 활동은 김경미,「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18~19세기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한국여성학회』28권 4호, 2012 참고.

14) 남편의 정치적 부침으로 인한 빈곤은 일시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많다. 이서구 <아내 정부인 평산 신씨에게 올리는 제문(祭室人貞夫人平山申氏文) > 홍학희 역주,『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1권, 2013, 보고사, 121쪽 참고.

15) 어렸을 때의 빈곤 경험에 관한 것은 다음 자료가 예외적이다. 이남규, <안인정씨 묘지명(安人鄭氏墓誌銘)>, "집이 몹시 가난하였는데 8, 9세 무렵에 며칠을 굶은 채 어린 동생과 누이들을 업고 집안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 때 현기증이 일어 거의 쓰러질 뻔하였으므로 담벼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다가 현기증이 좀 진정되자 여전히 집안을 서성거리면서 어른들이 이를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차미희 외 역주『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9권, 2013, 보고사, 238쪽.

## 3. 사족 여성의 빈곤 대처

<자료4>사람의 집 흥패(興敗)가 거의 가산 성패에 있고 가산 성패는 거의 부인에게 있으니 세업(世業)을 보존치 못하고 기한곤궁(飢寒困窮)하여 사망(死亡)에 이르는 것이 달리 그런 이도 있거니와 대개는 부인이 치산 잘 못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 적수(赤手)로 선가하여 양반의 몰골을 잃지 않는 자도 달리 그런이도 있거니와 대개 부인의 치산 잘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으니 이런 때문에 옛사람이 이르되 '집이 가난함에 어진 아내를 생각하다' 하였으니 어찌 조심치 않으리오 세간살이 다 그 사람의 능부(能否)에 있으니 줄이매 늘이매 있게 하매 없게 함이 임시(臨時)해서 의사상 추리여하에 있으니 (하략)[16]

<자료4>는 안동에 거주하던 권구(1672~1749)가 시집가는 딸에게 써 준 규훈서 『내정편(內政篇)』의 치산(治産) 항목에 있는 내용이다. 한원진(1682~1751)의 <한씨부훈>과 비교해볼 때 『내정편(內政篇)』에 기록된 교육 내용은 실생활과 관련하여 구체적 요구 사항이 많고 향촌 지역을 중심으로 읽혔던 것으로 보인다.[17] 권구는 집의 흥패는 가산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하며 집안 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단도직입적으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바로 부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집안 경제를 맡은 여성은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을 보존하고 극빈한 상황에서도 목숨을 보존하도록 해야 하며 맨 손으로 집안 살림을 잘 다스려 양반의 체면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또한 "가빈사현처(家貧思賢妻)" 라는 말을 인용하여 집안 살림을 불리는 것은 여성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유교사회에서 한 집안의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여성은 가정의 경제적 책임과 의무를 맡도록 교육받았던 것

16) 권구, 『내정편(內政篇)』, 옛날물건.
17) 이 시기 규훈서에 관한 내용은 황수연, 「조선시대 규훈서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기대와 경계」, 『열상고전연구』 32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참고.

이다.

### 3.1 의존적' 일시적 대처: 친정의 원조와 차용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관직에 나가는 길도 봉쇄된 사족 여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빈곤한 상황에 처한 여성은 보존해야 할 가업이 이미 소멸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맨 손으로 호구지책을 마련해야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친정이나 친지의 원조를 받아 의존적으로 해결하거나  적극적 경제활동을 통해 생업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자료5> 너는 천성이 부끄럼이 많고 졸박하여서 비록 궁핍함이 심하다 해도 남들에게 입을 연 적이 없었다. 그 아비에게도 또한 그러하였으니 내가 송도에 머물 적에 너는 갑자기 머뭇머뭇하면서 말하려고 하다가는 끝내 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를 물으니, 500전 되는 돈을 급히 제수에 써야할 곳이 있어서 얻고 싶다고 했었지. 내가 웃으면서 허락해 주었었다. 병이 막 위독해질 때도 정신은 또렷하여 이르기를 이웃사람에게 빌리고는 갚지 못한 것이 있다고 했었다. 그 수를 물어보니 천 백 냥뿐이었다. 내가 또 울면서 그를 갚아 주었지. 너는 가난하여서 끼니를 이을 것도 없었으면서 평생을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입을 벌려 말한 것이 오백 전을 넘지 않았었고, 10년 동안 이웃사람에게 빌렸던 것도 겨우 천 백일 뿐이었다. '자기 단속을 잘 하는 자가 일을 망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말처럼 곧 이 두 가지 일만 보아도 네가 허물이 적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18]

<자료6> 부인이 미망인(未亡人) 소리를 듣게 되면서부터 송씨 가문도 함께 쇠망(衰亡)하여 의지할 만한 데가 없어졌다. 그래서 부인은 아버지 잃

18) 이시원, <딸 정씨 부인 제문(祭亡女鄭氏婦文)> 김현미, 앞의 책, 376쪽.

은 아이의 손을 잡고 구성(駒城)과 포천(抱川)의 마을에 사는 시댁 친척에게 의지하여 살았다. 아이 또한 세상을 떠나자 동음(洞陰)에 있는 본가(本家)로 돌아왔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도망 다니며 갖은 신산고초(辛酸苦楚)를 겪으셨다. 그런데 친정 부모님마저 나란히 세상을 떠나셔서 부인이 드디어 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어지셨다. 그 때에 사람들이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부인의 곤궁함이 어디 비할 데가 없다고 여겼다. 70년간 어찌 그리 복(福)은 적고 궁(窮)한 일은 많았는지. (중략)

우리 외가댁은 충정공(忠貞公 : 李弘胄) 때부터 청렴결백(淸廉潔白)함으로 스스로를 단속하셨고 첨추공(僉樞公 : 李倚全)에 이르러 비로소 살림을 꾸릴 만하게 되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살림이 곤궁하셨을 때 어머님께서 항상 외가에 돈이나 베 등을 부탁하여 살림에 보태곤 하셨으니, 아버님께서 그 덕에 학업(學業)을 이루실 수 있었다. 19)

<자료7> 어머니가 시집오셨을 때 우리 집은 매우 가난하여 때때로 베와 비단, 돈과 곡식을 친정에서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이웃에서 어떤 이가 그것을 좋게 여기면 바로 "부모님의 근심거리이지 무슨 좋을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어야지 좋은 것이지요."라고 했다. 우리 아버지는 생활력이 좋으셨고 어머니는 힘을 다해 베를 짜 협조하여 집안을 세울 수 있었다. 20)

<자료8>시댁이 매우 가난하여 회천(懷川)에 있는 친정에서 모부인(母夫人)에게 의지하여 살았는데 얼마 안 되어 탄식하며 말하기를,

"여자는 마땅히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 하고는 드디어 보령(保寧)에 있는 시댁으로 돌아가고야 말았다. 이에서 그 의리(義理)에 과단성이 있음을 징험할 수 있다. 21)

---

19) 성해응, <이모 유인 이씨에게 올리는 제문(姨母孺人李氏祭文)> 홍학희, 앞의 책. 350쪽.
20) 조긍섭, <이씨 어머니 조유인 묘표(李母趙孺人墓表)>, 차미희 외, 앞의 책, 340쪽.
21) 성행응, <유인 송씨의 사적을 쓰다. (書孺人宋氏事)> 홍학희, 앞의 책, 268쪽.

<자료5>는 이시원(1790~1866)이 딸을 위해 지어준 제문의 일부이다. 이시원은 한성부우윤을 비롯해 고위직을 지냈다. 강화도로 시집을 가 끼니를 잇기도 힘들었던 딸이 선뜻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자 친정아버지가 미리 도와주었고 남은 빚도 대신 갚아 주었다. <자료6>의 여성은 미망인이 된 이후 시가가 쇠망하여 자식과 시댁 친척에 의지해 살았다. 그런데 자식마저 죽자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친정 부모마저 돌아가자 의지할 데가 없어져 더욱 곤궁해졌다. 성해응(1760~1839)은 자신의 어머니 또한 외가에서 돈과 베를 받아 살림에 보태 아버지 성대중(1732~1812)의 학업을 도운 사실도 첨기하고 있다. <자료7>의 여성은 친정에서 베와 비단, 돈과 곡식을 가져왔는데 주위 여성이 친정이 부유한 것을 부러워하자 친정에서 빌리는 일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라며 친정의 도움을 흔쾌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 여성은 남편이 생활력이 좋아 마침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다. 남편이 조력자로 등장하는 모습은 다른 자료에서 보기 드물다. <자료8>의 여성은 시댁이 가난하여 아예 친정집에 가서 살았다. 가족이 모두 갔는지 여부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맥상 친정살이를 그리 오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료5>의 이시원 딸은 몸이 약해 자력으로 일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 여성은 친정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빚을 남겼다는 것으로 보아 친정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움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6>의 성해응의 이모 역시 친정 부모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자신의 어머니도 친정에 도움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시집간 두 딸 이상이 친정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자료7>의 여성은 생활력이 좋은 남편과 마침내 집안을 일으켰으니 친정의 도움을 계속 받을 필요는 없었다. 친정에 얹혀살던 <자료8>의 여성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친정의 도움을 거절한 점이 '의리의 과단성'있는 행위로 칭송된다.

성해응은 "돌아가신 어머님께서는 어질고 너그러우셨으니 외가(外家)는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받았다. 아버님께서는 군읍(郡邑)을 맡아 다스

리셨는데, 외가에 무릇 상사(喪事)가 있으면 모두 상구(喪具)를 지원하고, 또 그를 위하여 묘전(墓田)을 사서 제사를 빠뜨리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여 친정에 도움을 받았던 부모님이 여유가 생기자 나중에 갚은 사실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친정의 도움은 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고 보답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성해응은 “우리 집이 매우 가난하여 외가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외가 사람들이 매우 괴롭게 여겼다.”[22] 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서술에서 도움을 주는 친정이나 도움을 받는 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친정에 원조를 청하는 여성의 내적 수모와 고통, 혹은 훼손된 자존심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여성들에게 친정은 경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 같은 존재로 인식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지할 친정이 없는 여성은 남에게 빌리거나 빚을 질 수 밖에 없었다. “집안이 심히 가난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리는 일을 면치 못하였는데 비록 평소 아끼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도 유인에 대해서 응대하면서 오직 늦을세라 걱정했다.”[23] “일찍이 남에게 빌린 것들은 모두 일일이 적어 두었으며, 그 중에 아직 돌려주거나 갚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를 써서 벽에다 붙여 두었다.”“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십 년 전 묵은 빚을 계산하여 갚으셨는데 원금에 대한 일수(日數), 달수(月數)의 이자가 터럭만큼도 틀리지 않았다.”[24] 는 언급은 모두 타인에게 돈이나 물건을 차용(借用)했던 상황에 관한 서술이다. 차용은 상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자발적 보답이 행해졌던 친정의 도움과 성격이 다르지만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런데 “돈을 꾸어주는 집에서 꾸어왔다가는 두 배 이자로 갚아주었는데도 빚을 받으러 온 이가 문간에 있으면 어머니는 혹 아버지가 아실까봐 두

22) 성해응, <막내고모남의 묘지(〔季姑母墓誌〕>, 홍학희, 앞의 책, 208쪽.
23) 오희상, <유인 경주 김씨 행장〔孺人慶州金氏行狀>, 김기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2권, 2013, 보고사, 49쪽.
24) 서유구, <낳아주신 어머니 정부인 한산 이씨 유사를 쓰다(書本生先妣貞夫人韓山李氏遺事)> 김기림, 앞의 책, 306쪽.

려워했다.[25]"는 서술을 통해 빚의 차용과 갚는 행위를 여성이 단독으로 책임지는 경우도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전 시기의 글에서는 여성이 "패물 상자를 기울여 집안 살림을 보탰다."는 언급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여성이 분할 상속을 통해 사유 재산을 소유했기에 긴요할 때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세기에 오면 남녀 차등 상속이 실시되어 딸은 상속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여성은 개인 재산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대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친정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는 딸을 일시적으로 도와주었던 모습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친정의 도움 요청을 주저하거나 거절[26], 혹은 갚음 등의 행위가 칭송되는 맥락으로 서술되는 것은 친정의 경제적 원조를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관습을 반영한다. 이는  명백히 19세기 출가외인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실행되고 있었음을 표방하는 것이며 실제로 친정의 도움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여성이 빚을 차용하고 상환하는 모습은 여성이 가정 경제의 주된 책임자이면서 주체였던 사실을 드러내는 징표로 볼 수 있다.

### 3.2. 자립적·장기적 대처: 생산적 경제 활동

<자료9> 집의 뜰이 점점 넓어졌으나 대나무가 죽어 무성하여 오래 지나자 버려진 땅이 되었다. 부인은 매번 달빛을 타고 몰래 가서 손으로 작은

25) 서유구, <낳아주신 어머니 정부인 한산 이씨 부장지 (本生先妣貞夫人韓山李氏祔葬誌)>, 김기림, 앞의 책, 288쪽.

26) "처음에 부인의 어머님인 유숙인(柳淑人)께서 딸이 달랑 벽만 있는 집에서 살면서 가을에 벼를 거두어들일 땅 하나 없음을 알고 초정(初亭)의 서쪽에 있는 밭을 갈아 먹으라고 하셨다. 부인의 병이 심해지셨을 때였다. 부인은 술인(述仁)에게, '초정은 오랫동안 돌아가고 싶은 곳이었으나, 지금 우리 집의 생활을 여기에 관련시키고 싶지 않네. 또 형제들도 얻지 못한 것이어서 내가 얻는 것도 편치 못하다네. 지금 돌아가서 꼭 나의 뜻을 아시도록 하게.'라고 말씀하셨다." 신작,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사(先妣遺事)>, 홍학희, 앞의 책, 565쪽.

> 괭이를 들고 떨기를 베고 뿌리를 잘라 개간하여 밭을 만들었다. 매일 한 척씩 계산하여 일하며 3년을 하니 마침내 그 공을 이루었다. 이때부터 집안이 비로소 밭을 갈게 되어 봄에는 보리를 거두고 가을에는 솜을 따 먹고 사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27]

친정의 도움을 받거나 빚을 내어 일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사족 여성들은 보다 자립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채마밭 가꾸기, 길쌈, 바느질, 새끼 꼬기, 개간하기 등의 육체노동을 서슴지 않았다.[28] 이러한 노동은 가족의 수요를 충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화로 바꾸어 살림을 늘리는 방편으로의 노동이었다. 쌀과 소금은 화폐 대용으로 거래되던 물품으로서 "길쌈을 잘하여 매번 한 필을 만들어 팔아 그 번 것으로 쌀과 소금을 마련하고 논밭을 샀고 ","고생하며 일하고 절약한 세월이 수십 년이어서 제법 저축한 것이 있었다"[29]는 것은 바로 길쌈을 비롯한 노동이 소득을 창출한 경제 활동이었음을 의미한다. 부유한 사족가에서는 주로 종들이 길쌈과 농사를 담당하였고 여성은 종을 적절하게 부리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되었다.[30] 하지만 부릴 종이 없는 영세한 사족 여성은 직접 베를 짜고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등 적극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하였다.[31] <자료9>의 여성은 밤마다 괭이를 들고

---

27) 곽종석, <선비 정부인 정씨 행장(先妣贈貞夫人鄭氏 郭源兆妻 行狀), 황수연, 앞의 책, 369쪽.

28) "어머니께서는 손수 채마밭을 가꾸고 길쌈을 해서 살림을 건사하는 데 법도가 있었다."이남규, <어머니 행장(先妣行狀)>, 차미희 회, 앞의 책, 268쪽. "숙인은 바느질 하고 새끼를 꼬며 그 수고로움을 다하여 쌀과 소금과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바치며 수고로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곽종석, <숙인 곽씨 묘표(淑人郭氏 崔虎文妻 墓表)>, 황수연, 앞의 책, 331쪽, 양반 여성의 노동과 경제적 활동은 김경미 앞의 논문 참고.

29) 조긍섭,<박부군 정유인 묘갈명(朴府君鄭孺人墓碣銘)>, 차미희 외, 앞의 책, 337쪽.

30) 내정편에는 <課役> 항목을 두어 종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 기록하였다.

31) 사족 여성의 소득 창출을 위한 경제 활동은 김성희, 『한국 여성의 가사 노동과 경

버려진 땅을 개간하여 마침내 밭을 갈게 되었다. 토지가 없는 사족 여성이 황무지를 밭으로 바꾸어 생업의 터전을 만드는데 꼬박 3년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다.

> <자료10> 유인은 옷감을 짜고 음식을 만들며 조금도 한가하고 편하게 지내지 않았으며 쌀과 소금 섶신과 채소를 세밀하게 살폈다. 자신이 누리는 것은 인색하게 하면서 베푸는 것은 바름을 잃지 않았다. 집안의 길흉사에 써야할 것이 있으면 마음을 다해 마련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완급의 정도에 따라 빌려주며 인색하지 않았다. 흉년이 들어 굶주릴 때는 밥을 해먹지 못하는 수 십 집이 도움을 기다렸다. 비복에게 직책을 내려줄 때에는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살펴 은혜와 위엄으로 다스려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경외하며 정성으로 기뻐하여 일을 하는 것을 즐겁게 하도록 하지 않음이 없었다. 날로 여유가 생겨 마침내 집안이 윤택해졌으나 하군은 막연히 알지 못하였다.[32]

<자료 10>의 여성은 몸이 약한 남편을 대신해[33] 집안일을 총책임지면서 옷감 짜는 일 외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곡식을 빌려주고 갚는 일종의 고리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은 누에를 치는 일도 했는데[34] 옷감을 짜고 실을 만들어 팔아 자본을 마련 한 후 고리업을 통해 보다 소득을 늘리고자 했다. 조선후기 고리대가 성행하는데[35] 이는 단시간에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인색하지

---

제 활동의 역사』, 신정, 2002 참고.

32) 곽종석, <박유인 행장(朴孺人 河禧源妻 行狀)>, 황수연, 앞의 책, 360쪽.

33) "하군은 성품이 바르고 순박하며 서사(書史)를 좋아하였다. 기질이 약해 병이 잘 걸려 집안 일로 마음을 쓸 수가 없어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유인에게 맡겼다." 곽종석, <박유인 행장(朴孺人 **河禧源妻** 行狀)>, 황수연, 앞의 책, 362쪽.

34) 곽종석, <박유인 행장(朴孺人 河禧源妻 行狀)>,"몸소 누에를 치고" 황수연, 앞의 책, 362쪽.

35) 최승희, 「조선후기 고문서를 통해 본 고리대의 실태」, 『한국문화』 19집,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7.

않았다"는 이면에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이율을 적용했고 "날로 여유가 생기고 집안이 윤택해지는데" 고리업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읽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자료 11> 집안이 가난하여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 이에 몸소 줄이고 검약하시어 헤진 치마를 입고 겨 섞인 밥을 드셨으니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바에 처하셔도 밤낮으로 매우 부지런히 일하셔서 한 푼씩 모이고 한 치씩 쌓여 아버님께 괴로움이 생기지 않도록 온갖 필요한 일을 주관하셨다. 36)

<자료 11-1> 내가 조정에서 섬긴 이래로, 가만히 어머님의 집안 다스리시는 법도를 살펴보니 절약하시는 것은 털끝 하나라도 함부로 쓰는 것이 없도록 하였으며, 베푸시는 것은 돈 상자 째로 하셔도 아까워하는 바가 없으셨다. ①자신에게 쓰는 돈은 아끼시니 치마도 한 폭을 다 쓴 것이 없었으며 온돌도 춥다고 때는 것이 없었다. 김치나 젓갈 따위도 많이 잡수시지 않았다. 그러나 위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나 아래로 종들에게 먹이는 것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알차게 하시고 반드시 풍성히 하셨고, 무엇이든지 몸소 단속하시고 손수 만드신 것이 아닌 게 없었다. ②제사에 쓰는 제수와 평소 쓰는 살림살이들은 하나하나 일 년 쓸 바를 계산해서 미리 준비하여 쌓아두셨으니, 그 때를 놓쳐서 급하게 사서 곱절의 돈을 쓰는 근심이 없었다. ③아주 자잘한 이해득실도 버리지 않고, 물정(物情)을 살펴서 숨기는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감히 속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바닷물처럼 줄줄 새고 말라버리고 사라지는 폐단이 없었다. ④식구를 헤아려서 먹을 것을 생각하고, 들어오는 것을 봐서 지출을 생각하셨다. ⑤화려하고 경박한 것은 떨쳐버리셨으며 오로지 검소하게 절약하는 데만 힘쓰셨다. 그러므로 빌고 꾸어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 폐단이 없었다. 이런 까닭에 비록 가난했지만 망하는 데

36) 박영원, <정부인에 추증된 어머님 양주 조씨 묘지(先妣贈貞夫人楊洲趙氏墓誌)>, 김현미, 앞의 책, 171쪽.

는 이르지 않았으며 비록 궁했지만 끝나는 데 이르지는 않았던 것이다. ⑥ 한 푼어치씩 쌓고 한 치씩 덧붙여서 스스로 남는 것이 있게 되어서 불우할 때 쓸 것을 마련해 놓으실 수 있었다. 가난한 집을 관리한 지 30 여년 되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가난함을 알지 못했으며, 비록 집안의 자손도 그 다다른 바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살펴보니, 앞에서 이른 바 '미리 준비한 것'[豫備] 밖에서는 놓칠 수 없다. 들어온 것을 따져보아 쓴다는 것은 세속의 부녀자들이 집을 감당한다[克家]고 부르면서 혼란스런 권모술수와 거칠게 다스리며 임시변통하는 것과 같지 않았다. ⑦돈과 곡식을 쌓아놓고 쓰실 때는 늘 성수(成數)[37]를 기준 삼으셨다. 가령, 엽 단위의 돈을 써야 할 때는 돈꿰미를 풀지 않으셨고 돈꿰미를 써야 할 때는 10의 수로 만든 것을 깨지 않으셨다. 10의 단위로 돈을 써야하면 백 단위의 돈꿰미를 풀지 않으셨다. 만약 모자라면 다른 방편으로 채워 넣으시면 절대로 소소한 쓰임 때문에 맞추어 놓은 액수를 허물지 않으셨으니, 다른 것도 모두 이러한 방법으로 미루어 하셨다. 이 까닭으로 결국 쓰시기는 하였지만 그 쓰임이 넘치거나 과한 것은 없었다. 이 또한 절약하고 아끼는 법의 일단(一端)이다. [38]

<자료 11>과 <자료 11-1>의 주인공은 박영원(1791~1854)의 어머니로 동일 인물이다. 경제적 활동은 한 집안에서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박영원은 간략한 서술을 기본으로 하는 묘지명에서는 어머니의 빈곤 경험과 대처에 대해 단편적으로 요약하였고, <어머니 유사>라는 글을 따로 지어 매우 자세하게 치산 행위와 재산 유지, 수입과 지출 및 저축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였다. 박영원이 본 어머니는 계획적인 지출과 불필요한 경비 줄이기, 절약과 저축 및 검소한 생활을 통해 재산을 유지하고 불려나갔다. 길쌈과 농사와 같은 기본

37) 성수(成數) : 하도(河圖) 의 수(數) 에, 1, 2, 3, 4, 5는 생수(生數) 요, 6, 7, 8, 9, 10은 성수(成數) 이다.
38) 박영원, <어머니 유사(先妣遺事)> 김현미, 앞의 책, 182~184쪽.

적인 노동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는 대신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여 지출하고 사치함을 멀리하는 살림살이를 통해 비싼 이자를 주고 고리대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쓸데없이 새어 나가는 자금이 없었던 사실을 중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박영원의 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꾸리며 실행했던 것들은 앞서 언급한 규훈서인 『내정편(內政篇)』의 출납(出納), 절용(節用), 저축(貯蓄) 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박영원의 어머니는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경제 활동을 충실히 실천한 모범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⑦ 항목은 생활의 지혜와 경험에서 나온 독창적인 지출 방법으로 보인다. 큰돈을 쓰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돈 꾸러미를 단위별로 보관하고 적은 단위의 돈을 쓸 때는 큰 묶음을 헐지 않고 지출하여 남용을 방지한 방법은 투철한 경제관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박영원의 아버지 박종순은 참의를 지냈으나 박영원이 8세이던 1808년에 세상을 떴다. 조씨 부인은 가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30여년 가난한 집안 살림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어머니로 아들에게 기억되며 칭송된다.

이항로(1792~1868)의 둘째 딸은 술을 빚어 팔아 그것으로 생계 수단을 삼고자 하였다. 딸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술을 만들어 팔고자하는 계획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항로는 “어찌 사람에게 해를 주고 사람에게 화를 일으키는 물건으로 업을 삼으면서 도리어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법을 둘 수 있느냐”, “생계를 꾀하는 것도 도가 있다”[39]며 못마땅한 심정을 강하게 표명하였다. 그리고 “너에게 털끝 하나만큼의 은택으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로 입으로만 인의를 말하고 있음”을 미안해하면서도 “가난이 심하지만 조그만 이익을 탐하지 말고 반드시 의를 주로 하고, 힘써 행하기를 게을리 말라”[40]는 훈계 또한 빠뜨리지 않고 있다. 양조(釀造) 대신 이항로가 딸에게 권한 경제 활동은

39) 이항로, <둘째 딸 김씨 부인에게 답함(書次女金氏婦)>, 김현미,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5권, 2013, 보고사, 20~21쪽.

40) 이항로,<김씨의 아내인 둘째 딸에게 답함(書次女金氏婦)> 김현미, 앞의 책, 24쪽

길쌈이었다. 양조는 길쌈 보다 훨씬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본격적인 상업 활동이다.[41] 딸은 유용한 경제적 활동으로 양조를 계획했는데 아버지인 이항로는 유교적 관점으로 술의 해악을 거론하며 딸의 양조 사업을 반대하였다. 김씨 부인의 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딸이 아버지의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두 부녀의 편지를 통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실행 여부가 아니라 세대간의 달라진 경제관념이다. 둘째 딸은 독서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식견이 있는 여성으로 기록되기도 하는데[42] 당대의 신분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를 인식했던 딸은 실용주의적 경제관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서학파'의 거두인 아버지 이항로는 여전히 전통적 경제관을 묵수하며 그것을 딸에게 요구했고 부녀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족 여성은 길쌈을 비롯해 누에치기, 바느질, 밭 가꾸기 등의 육체적 노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였고 고리업, 계획적 지출과 소비 등의 경제 활동을 통해 빈곤한 상황에 대처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19세기 여성의 노동은 이전 시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고리업을 활용했다는 것이 이전 시기와 다른 점으로 특기할 만하다. 보다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 술을 빚어 팔고자하는 여성도 있었지만 유학자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친 여성의 모습을 통해 경제관이 바뀌는 지점이 포착되기도 한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서술이 이전 시기보다 상세히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여성의 경제 활동이 다양해졌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 가정과 가문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중시되는

41) 인목대비의 어머니가 술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 이야기를 통해 양조 사업이 큰 이득을 창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송시열, <광산부부인 노씨 묘지명병서〔光山府夫人盧氏墓誌銘幷序〕>〔光山府夫人盧氏墓誌銘幷序〕 "모시던 여종이 술을 팔아서 봉양하니 제주도의 백성들이 다투어 돈을 들고 와서 사가며 "대비 어머니의 술이 맛있다"고 일컬으니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삼키지 않음이 없었다" 김경미,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권, 2006, 보고사, 202쪽.

42) 이 여성에 대해서는 김현미, 「19세기 조선 학자의 딸/선비의 아내로 산다는 것-화서 이항로의 2녀 벽진 이씨의 삶」, 『한국문화연구』 20권,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1 참고.

시대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 4. 사족 여성의 빈곤 경험과 대처에 대한 의미: 빈곤의 성차별화.

<자료 12> 자신을 봉양하는 데는 박하여 매일 밥을 드시는 것이 수저 3숟갈 정도를 넘지 않았고 다만 채소와 콩과 물로 주린 배를 채웠다. 겨울엔 솜옷을 입지 않았고 발에는 비단 신발을 신지 않았다. 자녀가 앞에 가득하여 해진 솜옷으로 옷을 만들어 주었는데 다만 남편에게는 반드시 깨끗하고 검소한 옷을 갖추어 주며 누추하지 않게 하였다. 간혹 여러 날 밥을 짓지 못해 온 집안이 밥을 먹지 못한 적이 있었으나 때때로 아궁이에 불을 내어 이웃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매번 치마 허리띠를 조여 묶으며 말하길,

"부인의 양식은 치마의 허리띠가 반이다."

라고 하며 한 층 더 잡아매어 배를 떠받쳤다. 43)

<자료13> 부인은 몸소 가난을 겪으시면서, 아침저녁으로 몸이 다하도록 일을 하셨다. 몇 되의 곡식이라도 수확을 하면 옥(玉)과 같이 여겨 나무를 지펴 끓여 먹지도 못하셨다. 여력(餘力)이 있으시면 식구들의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자신은 해진 저고리, 헌 솜으로 만든 옷이라도 싫어하시는 것이 없으셨다. 이불이나 홑이불도 없이 여름에는 덥게 겨울에는 춥게 지내셨으며, 지금 입어야 할 옷은 아껴 상자에 담아 두었고 매번 먹다 남은 밥을 드셨다. 44)

<자료 12>의 남성은 살림살이에 욕심이 없었고 친구 초청을 좋아해

43) 곽종석, <선비 정부인 정씨 행장(先妣贈貞夫人鄭氏郭源兆妻行狀)>, 황수연, 앞의 책, 369쪽.

44) 신작,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사(先妣遺事)>, 홍학희, 앞의 책, 565쪽.

아내가 자신의 옷과 장신구 등을 팔아 음식을 마련해 남편의 접빈객 물자를 제공했다.[45] 하지만 자신은 3숟가락 이상 먹지 않았고 채소나 콩, 물로 배를 채우며 그것도 안 되면 치마끈으로 배를 잡아매며 배고픔을 견뎠다. 가부장인 남편, 자식, 본인의 순서로 소득을 분배했는데 자신에게는 늘 박했다. <자료 13>의 부인은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사양하고 몸이 다하도록 일을 하여 곡식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곡식을 끓여 먹지도 못했고 여름에는 덥게 겨울에는 춥게 지내는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매번 먹다 남은 밥을 먹었다.

위의 예문에서 빈곤에 처한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 다르고 여성이 경제적 주체로 노동한 후의 소비의 분배 또한 균등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자료 12>의 남성은 집안 살림과 상관없이 접빈객을 즐기며 군색함에 무관심했고 여성은 자신의 물건을 팔고 채소밭을 가꾸며 남편이 선비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왔다. 이는 빈곤을 감수하는 감정과 불균한 소비의 차이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적 요소가 있었음을 뜻한다. 예문의 두 여성은 모두 아들에 의해 형상화되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성차별적 빈곤 경험과 탈빈곤 후 불평등한 혜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칭송하는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조선후기 사족 여성이 빈곤을 경험하고 대처하는 과정에 대한 특징과 의미를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의 빈곤은 규범과 결합되어 서술되는 특징을 들 수 있다. 19세기 사족 여성들이 빈곤에 노출되는 경우는 증가하였고 때로는 끼니를 잇지 못할 정도의 극빈

45) “아버님은 집안 살림을 운영하는데 욕심이 없었고 친구들을 초청하는 것을 좋아하셨다. 표주박과 주발에 아침저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하였으나 부인은 나삼을 잡히고 빈발을 팔아 쌀과 바꾸며 채소밭을 가꾸고 숲에서 나물을 캐어 반찬을 마련해 평상시처럼 음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남편으로 하여금 군색함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 항상 말하길,‘손님이 집에 오지 않으면 이러한 집은 집채는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셨다.” 곽종석, <선비 정부인 정씨 행장(先**妣**贈貞夫人鄭氏**郭源兆妻**行狀)>, 황수연, 앞의 책, 369쪽.

상태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봉제사·접빈객·구휼 등의 유교적 규범은 이러한 빈곤 여성에게도 예외 없이 요구되었다. 사족 여성의 빈곤은 효도, 배려, 나눔, 보살핌 등의 윤리적 행위와 관련되어 서술된다. 때때로 시동생이나 시누이 부양[46], 첩에 대한 경제적 보살핌[47], 쌀독이 비어도 이웃을 돕는 행위 등이 첨기 되기도 한다.[48]. 여성의 빈곤이 가족 내의 권력관계와 규범 등과 관련된 비물질적 요인들은 여성과 남성이 빈곤을 다르게 그리고 불평등하게 경험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49]

---

46) 성해응, <유인 한산 이씨 애사(孺人韓山李氏哀辭)> "나의 두 동생이 모두 아직 어렸는데 내 처가 모두 돌보아 길렀네. 자신의 배고픔을 참고 밥을 덜어주었으며, 자신의 추위를 참고 옷에 솜을 더해주었다네. 동생들이 장가를 가게 되자 자신의 귀고리와 다리 붙이를 꺼내서 두 동서에게 다 주었으니, 처가 종족(宗族)에게 얼마나 우애가 있었는지를 가히 알 수 있었다네." 홍학희, 앞의 책, 361쪽.

47) 서유구, <낳아주신 어머니 정부인 한산 이씨 유사를 쓰다(書本生先妣貞夫人韓山李氏遺事)>. "아버지의 시중을 들었던 여인 아무개는 함흥(咸興) 사람이다. 우리 집에 온 지 4년이 될 무렵 마침 다른 대신할 다른 사람이 있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어머니는 "저 사람이 비록 천하기는 하나 여러 해 동안에 남편을 모신 노고가 있었다. 보낼 때에 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께 말씀드려 물품을 후하게 주어 보냈다. 아무개는 문을 나서며 울면서 "나는 주인어른을 끝까지 모시지 못한 것이 한스럽지는 않다. 구슬을 토하고 둥근 옥을 물어다 부인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일이 한스럽다"고 했다. 측실(側室) 딸인 김(金)은 그 어미가 미천하여 그녀가 시집갈 때 어머니가 혼례를 주관했다. 그리고 옷과 장식품, 혼수 등을 모두 적녀(嫡女)에 비길 정도로 해주었다." 김기림, 앞의 책, 306쪽. 성해응 <막내고모님의 묘지(季姑墓誌)> "이공이 양양(襄陽) 기생을 취하여 첩(妾)으로 삼아서 막내고모와 함께 한 집에서 살았다. 살림이 자주 궁핍해져 혹 굶주림이 심해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였고, 겨울에는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하였으며 집이 퇴락하여 사방 벽에 얼음과 서리가 빙 둘러 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막내고모께서는 일찍이 왜 살림을 따로 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홍학희, 앞의 책, 208쪽.

48) 신작,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사(先妣遺事)>, "부인이 심주(沁州)에 거하고 계실 때에 매번 봄여름이 바뀌게 되는 때가 되면 항아리에 곡식이 비었다. 그런데 이웃마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명아주나 콩잎도 먹지 못해 집집마다 입도 축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곤 하였다. 부인은 방법을 마련하여 바느질한 것을 팔고 베 짤 일을 받아서는 식량을 살 비용을 충당하여 주셨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사(先妣遺事)>, 홍학희, 앞의 책, 565쪽.

49) 정채원, 『숨겨진 빈곤』, 푸른 사상사, 2010, 33쪽.

다음은 주로 가부장인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빈곤을 극복하는 행위가 서술된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조력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여성이 담당한 경제적 책임이 과중했던 사실이 드러난다. “대한 사름을 二千万을 치드릭도 그 즁에 녀인과 샹놈을 쎅고 보면 젼국 안에 일 홀 사름들은 불과시 五분의 일 밧긔 못 될터이니 엇지 나라이 진보 ᄒᆞ기를 볼ᄋᆞ리오”.”[50]고 하며 일하지 않는 사족 남성을 비판하는 어조를 담고 있던 매체의 논설을 통해서도 이 시기 여성이 경제 활동의 주체였음이 확인된다. 조병덕은 가난하고 군색함을 모두 맛본 아내와 달리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들어도 귀를 막은 듯 알아듣지 못했고 그 근심과 아픔을 거듭 못 본 듯이 하였다.”[51]라고 하며 빈곤한 집안 형편에 대해 모른 척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아내의 제문에 담았다. 하지만 조병덕은 고백과 달리 ”비기력불식(非其力不食: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을 실행하려고 노력했고 궁핍한 집안 살림을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취했던 모습이 발견된다.[52] 사실과 차이가 나는 이러한 언급은 아내의 공을 치하하고 위로하기 위한 수사적 특징일 가능성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족 여성의 가정에 대한 경제적 기여는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되며 자손들에 기억되기도 한다.[53] 정조는 “자네 형 직제학 집안은 날마다 부족하고 저축해 놓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런히 애쓰는 내조에 힘입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모자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하냐?”[54]고 하교하였는데 이는 서유구 어머니의 경제적 내조가 임금에게까지

50) 독립신문, 1899년 4월 26일, 논설
51) 조병덕, <아내 광산 김씨 제문(祭亡室光山金氏文)> , 김현미, 앞의 책, 257쪽.
52) 조병덕, <答洪一厚>「肅齋集」권15,『한국문집총간』311, 298쪽.
53) 성해응, <증조모 유인 전주 이씨의 묘지曾祖母孺人全州李氏墓誌>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안이 해주(海州)의 평민이 되지 않고 문학(文學)으로 전하게 된 것은 태유인의 덕이라고 하셨다. 자손들은 이를 기억할지어다.” 홍학희, 앞의 책, 301쪽.
54) 서유구, <낳아주신 어머니 정부인 한산 이씨 유사를 쓰다(書本生先妣貞夫人韓山李氏遺事)> 김기림, 앞의 책, 306쪽.

알려져 인정을 받는 내용이다. 이러한 인정 발화가 사족 여성의 경제적 공헌을 사회적으로 공식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족 여성의 경제적 능력과 그에 따른 위상이 달라졌을 거란 사실과 경제적 주도권을 쟁취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행장, 제문 등 글의 특성상 여성의 개인 재산 형성에 관한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이에 대한 추정도 가능하다.

## 5. 맺는 말

<양반전>과 <허생전>, <복선화음가> 등을 통해 조선후기 사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정과 사족 여성의 실용적 경제관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으로 이루어진 문학 작품이다. 본고에서 다룬 여러 자료들 역시 문학 작품이지만 실존했던 인물을 대상으로 그들이 처했던 빈곤과 탈빈곤하기 위해 강구하고 실행했던 사실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하지만 제문, 묘지명, 행장 등의 글쓰기는 망자를 미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작성자의 사적 감정으로 사실에 대한 생략과 기억의 조작 등의 행위가 일어나기도 한다. 때문에 소설과 가사보다 리얼리티가 강하다고 단호하게 말할 근거도 희박하다. 특히 사족에게 빈곤의 문제는 다소 과장되게 인식되기도 했다. 하지만 생략과 조작, 과장 역시 글을 쓰는 사람의 빈곤에 대한 인식이라 생각하고 자료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작성하면서 느낀 문제점을 제기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소비와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에 거주하는 경화사족여성은 노동에서 자유로워 여유 있게 평생을 보낼 수 있었다. 향촌 사족 여성은 정계에 진출하지 않는/못하는 남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물론 경화사족의 부를 뛰어넘는 향촌의 대지주 사족의 여성도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향촌 사족 여성이

빈곤에 처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요직을 두루 역임했어도 정치적 부침에 따라 일시적으로 빈곤했던 사족 여성도 있고 평생을 지속적인 빈곤에 놓였던 여성도 있다. 하지만 빈곤에 노출된 시기의 장단에 따라 개인이 느꼈을 빈곤에 대한 경중과 신산함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 부유하게 지내다 갑자기 빈곤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 수도 있고 평생을 빈곤하게 지낸 사람은 잠깐이라도 탈빈곤 상황에서 사는 것을 바랐을 수도 있다. 친정의 원조를 부러워하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친정에 도움을 청하는 자신의 신세 때문에 수모와 자괴감을 느끼며 자존심이 훼손된 여성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빈곤 경험은 같은 신분 내에서도 다양성을 보인다.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에 가족 구성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러한 역할을 한 숨은 조력자인 노비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족 여성의 경제 활동을 위해 또 다른 여성의 희생과 착취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여성의 빈곤은 이처럼 신분 내에서 뿐 아니라 여성 내에서도 차별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의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는 개별 여성의 구체적 경험을 밝히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사족 여성의 삶의 규모와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 자료를 살펴 비교할 수 있다면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택영(1850~1927)은 황원의 처 안유인이 빈곤한 살림을 꾸리느라 고생해 일찍 죽었다고 하면서 “사대부가 입으로는 도덕을 말하고 겉모습은 풍류를 꾸미지만 안에서는 서울의 부자들의 돈과 재물을 빼앗아 생업을 삼고 시골의 선비들은 하루 종일 책을 보며 중얼거려 그들의 처의 근력과 골수가 이미 뽑아져 말라비틀어진다. 계방(황원의 호)은 비록 어질지만 세속과 같으니 어째서인가? 55)고 하며 황원의 아내 안유인이 가난한 집안 살림을 하느라 피로가 쌓여 일찍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남편에게

55) 김택영, <황원의 처 안유인 묘지명(黃 瑗 妻安孺人墓誌銘甲寅>, 황수연,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8권, 2013, 보고사, 285쪽.

돌리고 비난하고 있다. 남성에 의해 사족 남성의 경제적 무책임과 무능력이 지적되고 그것 때문에 근력과 골수가 뽑힐 정도로 고생한 여성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은 개화파 지식인의 입을 통해 비로소 발화되었다. 김택영은 상업을 흥기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세태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 대저 사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은 선왕의 바른 백성(正民)이었다. 이 네 부류의 백성은 소소하게 귀천의 구별이 없을 수는 없었으나 일찍이 귀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일은 있지 않았다. 선비를 귀하게 여기고 장사꾼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후세의 혼란스런 정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천하에 천한 일을 피하고 귀한 일을 좇는 것이 넘쳐남이 모두 이와 같다. 그러나 관직의 길이 좁아 수용할 수 없어 밤낮으로 공업을 열심히 일하며 기술을 익혀 일찍이 스스로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어지럽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때문에 백성과 나라를 병들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자력으로 밥을 먹고 자신의 재물로 부모님을 봉양하고 벼슬아치를 섬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을 비교하여 헤아려 보면 그 어진 사람과 불초한 사람이 과연 어떠한가? 아아! 이러한 데도 오히려 저를 귀하게 여기고 이를 천하게 여기는 것이 가한가?[56]

직업에 귀천이 없으며, 과거 공부에 전념하느라 생활을 등한시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백성과 나라를 병들게 하는 죄악이라는 생각, 신분을 뛰어넘은 건강한 노동에 대한 중시 등은 보수적 지식인과 다른 경제적 입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관은 앞에서 살펴본 이항로 딸의 실용적 경제관과 유사하다. 19세기 후반 개화파 지식인에 의해 여성의 경제 활동이 인정받고 상업을 중시하는 실용적 경제관이 등장하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여성의 빈곤은 여전히 성차별적 요소를 갖고 있다. 조선후

56) 김택영, <왕씨의 어머니 김숙부인 묘지명(王母金淑夫人墓誌銘)>, 황수연, 앞의 책, 281쪽.

기 사회경제적 변화는 근대로 가면서 더욱 심화되며 가족과 신분의 해체 등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며 또 다른 모습으로 여성의 빈곤을 가져왔다. 우리나라 여성의 빈곤과 노동, 경제적 역할을 사적으로 살펴 변화와 지속을 조망하고 궁극적으로 여성 빈곤의 문제점과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여성 빈곤을 살피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작업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홍학희 외, 역주,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 1~9권, 2013. 보고사.

김경미,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권, 2006. 보고사.

권구, 『내정편(內政篇)』, 옛날물건.

조병덕, 「肅齋集」, 『한국문집총간』 311.

독립신문, www.,mediagaon.or.kr.

### 2. 단행본 및 논문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159~221쪽.

김경미, 『家와 여성』, 여이연, 2012, 32~42쪽.

김성희, 『한국 여성의 가사 노동과 경제 활동의 역사』, 신정, 2002, 1~128쪽.

정채원, 『숨겨진 빈곤』, 푸른 사상사, 2010, 1~202쪽.

정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9, 525~562쪽.

캐론린 라마자노글루/김정선 옮김,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문예출판사, 1997, 157~186쪽.

강혜선,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집,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189~217쪽.

김경미,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활동-18~19세기 양반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8권 4호, 2012, 85~117쪽.

김석회, 「조선후기 향촌사족층 여성의 삶과 시집살이 서사-<망실안인윤씨행장>, <삼한습유>. <복선화음가>의 경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49~78쪽.

김현미, 「19세기 조선 학자의 딸/선비의 아내로 산다는 것-화서 이항로의 2녀 벽진 이씨의 삶」, 『한국문화연구』 20권,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11, 75~98쪽.

최승희, 「조선후기 고문서를 통해 본 고리대의 실태」, 『한국문화』19집,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7, 89~127쪽.

황수연,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161~192쪽.

황수연, 「조선시대 규훈서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기대와 경계」, 『열상고전연구』 32집, 열상고전연구회, 2010, 143~172쪽.

**Abstract**

The study on the poverty experience of the noble women and how they cope with the poverty in the late Chosun

Hwang, Suyeon

The poor noble men increased because of limit of entering the main political area and the diminishment of properties by the differential inheritance according to the son and daughter , and their income and the heavy tax. The noble women received help from their parents home or have dept others to cope with the poverty as the defendant and temporary solution, They did the economic activities to make a living as the positive and the long term solution. Most of the noble women did the economic activities like the weave, silk farming, cultivating, loan-sharking to overcome the poverty basically. The poverty experience of the noble women was described with the moral standard like the filial duty, regard, care, donation. The nonmaterial elements like the power relation and the moral standard in the family caused influence the unequal of the poverty experience of the noble women . Women's economic contribute in domestic get recognition privately and their position must be high. The socio-economic change in the late Chosun escalated in modern times and brought different women's poverty by causing the family in crisis like the family disorganization and the dissolution of social class.

Key words : the 19th century, the noble women , the poverty, economic activities, modern times, practical economic view

■ 본 논문은 7월 20일에 접수되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8월 5일에 게재 확정되었음.